

# 松沙 奇宇萬의 위정척사사상과 의병정신

- 상소문과 담판문을 중심으로

조일형\*

## - 목 차 -

- I. 머리말
- II. 생애와 노사학통의 계승
- III. 상소문에 나타난 위정척사사상
- IV. 담판문에 투영된 의병정신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松沙 奇宇萬의 위정척사사상과 의병정신을 그의 상소문과 담판문을 통해서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말 호남의 초기 의병은 위정척사사상을 기반으로 전개되었으며 그 중심에 奇宇萬이 있었다. 기우만은 한말 대 격변기를 살다간 인물이다. 서양과 일본의 침략에 국토가 유린되고 만백성이 고통 속에 살았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끗끗하게 자신의 절의와 사상을 지켰고 행동으로 실천했다. 이것은 모두 존화양이적 위정척사사상과 복수토벌이라는 춘추 의리 정신에 입각하여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지은 「을미소」에서는 단발령과 제도개혁에 반대하였다. 또 개화사상을 개물성무와 화민성속으로 포장한 패망한 나라의 자취로 인식하

---

\* (사)호남지방문화연구소 연구원

고 선왕의 옛 제도를 회복하고 일본에 복종한 친일 세력을 응징할 것을 주장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다섯 번째 상소인 「을사소」를 올렸는데 여기에서 그는 을사오적이 정부의 비호와 포상을 받고 있는 실상을 폭로하고, 을사오적의 처벌과 백성에게 사죄할 것을 청했다.

또한 그가 의병활동으로 체포되어 공초를 받으면서는 왜놈의 고기를 먹고 피부를 벗겨서 깔고 눕고 싶다는 조선 백성들의 복수의 울분을 대변하였다. 일본은 국모를 시해하고 우리 군대를 해산시켰으며 전장을 파괴하고 피부와 터력을 훠손시키고 우리 강토를 유린한 실체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처단하고 배척받아야 할 邪로 인식하였다.

주제어 : 송사 기우만, 위정척사, 을미소, 을사소, 의병

## I. 머리말

본 논문은 松沙 奇字萬(1846~1916)의 위정척사사상과 의병정신을 그의 상소문과 담판문을 통해서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말 호남의 초기 의병은 위정척사사상을 기반으로 전개되었으며 그 곳에 기우만이 있었다. 을미년(1895) 단발령과 민비시해라는 국가의 변고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학자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평소에 ‘復讐討伐’의 春秋 의리를 다진 유학자 기우만은 손을 놓고 좌시할 수만은 없었다. 또한 조부인 蘆沙 奇正鎮(1798~1879)의 위정척사운동<sup>1)</sup>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적극적

인 실천 의지를 함양하였기에 망설임과 두려움 없이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 가학과 유학 사상의 바탕 위에 省齋 奇參衍(1851~1908), 鹿泉 高光洵(1848~1907) 등과 함께 1896년 2월 장성에 모여 의병을 모집하는 통문을 보냈다. 그리고 모집된 의병과 함께 나주에서 湖南大義所將으로 추대되었다. 이 때 송사는 세 편의 「丙申疏」를 올렸으나 고종에게 모두 전달되지 못하였다. 또 30일 광주에 집결할 계획이었으나 27일 파견된 宣諭使 申箕善의 권유로 의병을 해산하였다.<sup>2)</sup>

기우만의 의병활동에 대한 기준 연구<sup>3)</sup>를 살펴보면, 대체로 초기의병과 1차 의병 활동이라는 점 그리고 선유사의 권유로 의병을 해산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결과 성과나 의의, 상세한 활동을 독립적으로 조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전국 의병활동을 조명하는 글 속에 기우만의 행적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기우만의 위정척사사상과 의병정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원 자료에 근거하여 살펴본 연구를 찾기 어렵다. 이상식의 논문도 기우만이 의병대장으로 추대된 초기의병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데서 그쳤다.<sup>4)</sup>

기우만에 대한 자료는 문집이 방대하지만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기우만의 의병정신을 조명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지만 그보다 기우만의 자료를 처음으로 번역하여 소개하는데 또 하나의 의의를

- 
- 1) 노사는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召募檄文」, 「丙寅疏」 등을 지어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하였다.
  - 2) 奇字萬, 『松沙先生文集附錄』 권2, 「行狀」.
  - 3) 이상식, 「韓末의 義兵抗爭 : 全南地方을 中心으로」, 『역사학연구』 제4집, 전남사학회, 1990; 홍순권,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의 參加層과 사회적 기반」, 『역사 연구』 제1집, 역사학연구소, 1992; 홍순권,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사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4; 이상식, 「한말 광주·전남의 동학 농민혁명과 의병전쟁」, 『역사학연구』 제9집, 전남사학회, 1995; 홍영기, 「韓末 湖南義兵의 特性과 日帝의 對應」, 『역사학연구』 제10집, 전남사학회, 1996; 이상식, 「한말 항일민족운동의 一考·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제11집, 전남사학회, 1997;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김기립, 「개화기 호남 유림의 여성 인식 : 송사 기우만을 중심으로」, 『한국 고전연구』 제3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홍영기, 「한말 호남의병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학연구』 제64집, 전남사학회, 2016.
  - 4) 이상식, 「韓末 湖南義兵의 歷史的 意味」, 『호남문화연구』 제22집, 호남학연구원, 1993, 93~106쪽.

두고자 한다. 본 논문은 『松沙先生文集』서울대 규장각본(청구기호 : 古 819.5-G347s)을 저본으로 하여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영인한 『한국문집총간』345~346을 활용하였다.

그가 지은 여러 편의 상소문과 체포되어 심문을 받았던 담판문 속에는 유교의 춘추의리, 혼란한 국가에 대한 충심과 경영의 계책, 유학자로서의 고뇌, 일본에 대한 비분강개 등의 행적이 다양하게 드러나 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기우만의 행적을 소상히 밝혀 그를 이해하고 호남 초기의 병 활동의 의미에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다. 고찰하는 순서는, 2장에서는 생애와 노사학통의 계승, 3장에서는 상소문에 나타난 위정척 사사상, 4장에서는 담판문에 투영된 의병정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생애<sup>5)</sup>와 노사학통의 계승

기우만의 자는 會一, 호는 松沙 또는 學靜居士이며 본관은 幸州이다. 1846년(현종12) 8월 7일 長城 卓洞에서 5남 1녀 중 3째로 태어났다. 조부는 奇正鎮<sup>6)</sup>, 부친은 奇晚衍, 모친은 延安 李氏로 李後白의 후예이다.

기씨의 遠祖는 고려시대 平章事を 지낸 奇純祐로 이로부터 대대로 현달한 이들이 나와 東方의 大族이 되었다. 행주는 경기도 고양군의 옛 지명이다. 判中樞府事로 정백리에 錄選된 奇度(?~1460)과 그의 손자인 弘文館 應敎 奇贊(1424~?)까지는 경기도 행주에서 세거 하였다. 奇贊의 다섯째 아들 服齋 奇遵<sup>7)</sup>이 기묘사화에 연루되자 둘째 아들 奇遠은 장성

5) 기우만의 생애는 1947년 간행된 『松沙先生文集附錄』 권1, 「年譜」와 권2 「行狀」에 근거하였다.

6) 1798~1879. 본관은 행주, 자는 대중, 호는 蘆沙이다. 증참판 在祐의 아들이며 시호는 文簡이다. 전라북도 순창에서 출생은 했지만, 생활은 아버지 유언에 따라 선대 고향인 長城郡 黃龍面 小谷里 河南·卓谷 일대에서 생활하였다.

으로, 넷째 아들 奇進은 광주로 화를 피하여 낙향하였다. 그 때부터 전남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와 광곡[너브실], 전남 광산군 임곡면 신룡리 신촌[새말]이 기씨의 집성촌이 되었다.<sup>8)</sup> 송사의 선조는 장성 쪽이다. 증조는 吏曹 參判에 증직된 奇在祐(1769~1815)이고 조부 奇正鎮<sup>9)</sup>은 호가 蘆沙이며 시호는 文簡이다. 主理를 밝히고 위정척사를 주장하여 유가의 종장이 되었다. 부친인 奇晚衍(1819~1876)은 호가 鰲西이며 학문과 기질이 있었으나 일찍 세상을 떠났다.<sup>10)</sup> 이후 기우만은 조부 기정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으며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기우만은 어려서부터 조부인 노사 선생 문하에서 학문하는 학자들을 따라 배우며, 학문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大谷 金錫龜<sup>11)</sup>·老柏軒 鄭載圭<sup>12)</sup>·日新齋 鄭義林<sup>13)</sup> 등과 서로 학문을 강마하고 토론하였으며, 그들은 1879년 노사 기정진이 세상을 떠나자 기우만이 노사 선생의 뒤를 이어 학문을 이어갈 것이라 확신하였다.

- 
- 7) 1492~1521. 己卯名賢의 한 사람이다. 본관은 행주, 자는 경중, 호는 服齋·德陽이다. 아버지는 응교 懶弘이다. 趙光祖 문하에서 수학했다. 1513년(중종8)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급제했다. 1591년 기묘사화로 조광조·김식·김정 등과 함께 하옥되고, 아산으로 유배되었고 穩城으로 옮겨졌다. 그 뒤 어머니상을 당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 1521년 송사련의 무고로 辛巳謫獄이 일어나자, 다시 유배지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다. 1545년(인종1)에 복권되어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문집으로 『복재집』과 『덕양유고』가 있는데 『덕양유고』는 번역되었다.
- 8) 호남지방문헌연구소, 『호남문중문헌기초목록』,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6, 46~47쪽.
- 9) 1798~1879. 본관은 행주, 자는 大中, 호는 蘆沙이다. 판중추부사 度의 후손이고, 아버지는 在祐이며, 어머니는 안동 권씨로 德彥의 딸이다. 성리학에 대한 독자적인 궁리와 사색을 통하여 理一分殊 이론에 의한 독창적인 理의 철학을 수립하였다.
- 10) 부친인 기만연은 송사 나이 31세에 세상을 떠났다.
- 11) 1835~1885. 본관은 金海, 자는 경범, 호는 大谷이다. 노사 기정진의 문하생으로 유교의 경전 가운데 사서에 능통했다. 스승인 기정진이 그를 김맹자라고 말하며 칭송했다고 한다. 특히 성리철학에 밝고 문장에 능했다고 한다. 문집으로 『대곡집』이 있다.
- 12) 1843~1911. 본관은 草溪, 자는 英五, 厚允, 호는 老柏軒, 艾山이다. 1864년(고종1) 경남 합천에서 전남 장성 奇正鎮의 문하로 들어가 학문을 탐구하였으며 척사위정론을 주장하였다. 저서로 『노백현집』이 있다.
- 13) 1845~1910. 본관은 光山, 자는 季方, 호는 日新齋이다. 應敎 鄭應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濟玄이고, 어머니는 珍原 朴氏 致聖의 딸이다. 1868년 기정진에게 집지하여 스승의 학설을 계승하면서 율곡의 학설을 주리적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또한 나라가 일제에 의해 잠식되어 가자 의병 활동을 하였다. 문집으로 『일신재집』이 있다.

19세기 중반 이후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노사학파는 구한 말 혼란한 시기에 위정척사운동과 의병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기정진은 노론 가문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존화양이에 기반한 대일통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대일통 사상은 周나라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周를 중심으로 하여 천하를 통일하고자 함에서 나온 것으로 효종 대에 西인의 영수로서 北伐을 주장하였던 송시열(1607~1689)의 핵심 사상이었다. 기정진에게도 中華는 明나라이며 清나라는 夷狄으로 인식되었고 明나라의 中화 문명을 폐괴한 夷狄 청나라를 정벌하려고 한 효종이 대일통의 춘추 의리를 행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고종 대에도 君師의 지위에서 춘추 대의를 구현하면서 모든 신민을 통일하는 대일통의 세계를 구축하기를 고대하였다. 기정진의 위정척사사상의 형성은 豊陽趙氏 势力의 衛正斥邪 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다. 기정진은 교유 집단이나 문인집단의 형성에서 풍양조씨 세력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풍양조씨 세력은 1839년 기해박해를 주도하면서 척화론의 강화를 통해 세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었다. 趙寅永(1782~1850)과 趙止淵(1777~1841) 등 풍양조씨 세력에 의해 척사정책이 주도되었는데 위정척사라는 명분하에 안동김씨 세력을 누르고 정권을 장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기정진은 1839년 「大老祠」라는 시에서 “서양 요괴 처벌 받아 이목이 시원하니 이에 사문의 제사를 온 세상에 드리네.[西妖就斧瞻盼清 爰揭斯文奠環瀛]”<sup>14)</sup>라고 하여 서학인 천주교를 배척하며 풍양조씨 세력의 위정척사 정책을 지지하였다. 기우만이 21세가 되던 1866년 「丙寅疏」를 올리면서 기정진의 위정척사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흥선대원군은 천주교 탄압에 대한 정당성을 홍보하고 서양 침략에 맞서 신민들을 일치단결 시킬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軍資監正, 司憲府持平, 司憲府執義, 同副承旨 등의 관직을 기정진에게

14) 奇正鎭, 『蘆沙集』 제1권에 나온다.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를 참조하였다.

제수하여 그런 역할 기대한 것이다. 그는 「丙寅疏」에서 먼저 조정의 방책을 결정하라고 촉구하였다. 조정의 방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萬人을 하나로 묶는데 성공할 수 있다고 여겼다. 또한 통상을 거부하였으며 향촌에서도 군사를 조련하고 화포 등 무기를 제작하고 무예를 익히며 널리 求言하며 서양 세력의 침략을 막기 위한 内修방책을 제시하여 조정의 위정척사정책을 강화시키자고 하였다. 이 상소는 화서학파를 비롯한 재야의 유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문인인 李最善(1825~1883)의 의병활동을 격려하였고 본인도 의병을 일으키기 위해 서양세력과 천주교 격퇴를 호소하는 격문을 지었으며 병인양요가 끝나고는 사직소를 올려 천주교도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대부의 禮義廉恥회복을 통해 소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향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sup>15)</sup> 기우만은 부친인 기만연이 일찍 세상을 떠나 이른 나아에 조부인 기정진을 곁에서 모시면서 그의 위정척사사상과 활동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일찍부터 講學을 標榜하면서 性理를 담론하는 것을 일삼지 않았다. 오직 家學을 祖述하며 정자와 주자를 준법으로 삼았다.

기우만이 살던 시대도 국내외의 정세가 여러 가지로 혼란한 시기였다. 1882년 6월 壬午軍亂이 일어났고 서양과 일본의 침략이 시작되었다.<sup>16)</sup> 1884년엔 改服令과 甲申政變이 일어났다. 기우만은 春秋의리를 강조하며 개복령에 적극 반대하였고 ‘君命’이라 할지라도 따르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1895년 을미년 8월 명성황후가 시해되었고 겨울에는 斷髮令

15) 김봉곤, 「노사 기정진의 사상 형성과 위정척사운동」, 『조선시대사학보』 제30집, 조선시대사학회, 2004, 209~227쪽.

16) 이 시기는 1866년 병인양요, 1875년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해협을 불법 침략한 운요호사건이 일어났다.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개복령과 갑신정변, 1894년 갑오개혁 등 국내외 혼란이 가중되던 시기였다.

이 시행되었다. 그 해 12월에 기우만은 「乙未疏」를 올렸다.

1896년 의암 유인석이 畿內에서 의병을 일으키자 1월에 격문을 보내 의병을 모집하고 적극적으로 대항하려 하였으나 고종이 보낸 선유사의 회유로 좌절되었다. 9월 三聖山<sup>17)</sup> 정상에 三山齋를 지어 자취를 감추었고 외부활동을 일체 끊었다. 1897년 10월 명성황후의 장례가 거행되었다. 기우만은 산에 올라가 望哭하고 『春秋左氏傳』에 “적을 토벌하지 않으면 장례라고 쓰지 않고 장례라 쓰지 않으면 상복도 벗지 않는다.”는 의미에 근거하여 흰색 삿갓을 벗지 않고 의복과 이불도 모두 흰색으로 하여 거상하는 것과 같이 하였다. 고종이 안찰사 李永旭을 보내 삼산재에서 귀가할 것을 諭示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1905년 10월 乙巳條約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우만은 다섯 번째 상소인 「乙巳疏」를 올렸다. 1906년 여러 차례 거의를 도모하였으나 실패로 끝나자 압록강을 건너 청나라로 가서 초나라 申包胥<sup>18)</sup>처럼 구원을 요청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떠나지 못하였고 10월 光州경찰서로 압송되었다. 1907년 3월에는 을사오적의 암살을 사주했다고 하여 靈光경찰서에 압송되었다. 또 4월 서울경찰서로 압송되었다가 20일 만에 석방되었다. 1909년에는 「호남의사열전」<sup>19)</sup>을 집필하여 의병에 참여했던 여러 호남 의사들의 충정을 기렸다. 1910년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식음을 전폐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그는 “나는 오직 선왕에게 내 뜻을 바쳐 自靖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마침내 패랭이를 쓰고 賤人으로 자처하였다. 그러나 이단을 배척하고 성인의 학문은 밝히지 않을 수 없어

17)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고산서원 근처에 있다.

18) 伍子胥가 吳나라 군대를 이끌고 초나라를 급히 공격하자, 신포서가 秦나라 조정에 가서 7일 낮 밤을 통곡하며 호소한 결과, 구원병을 얻어 국난을 타개한 고사가 있다. 『春秋左氏傳 定公4年』

19) 1931년 간행한 『松沙先生文集』에는 실려 있지 않고 1980년 간행된 『松沙先生文集拾遺』 권1에 실려 있다.

精舍<sup>20)</sup>를 지어 후학을 가르치다가 71세인 1916년 세상을 떠났다. 죽음에 임하여 문인들에게 이르기를, “나이가 80을 바라보니 죽는 것은 한이 없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원수가 소멸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기우만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는 「을미소」를 올렸고, 1896년 호남에서 처음 거의할 때는 湖南大義所將이 되어 적극적인 의병 활동을 펼쳤다. 또한 을사조약 체결 소식을 듣고는 「을사소」를 올려 을사오적에 대한 척결을 주장하였다. 또한 조선의 문화와 제도를 正으로 규정하고 대단한 궁지와 자부심으로 민족의식을 키웠고, 서양과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여 그들의 사상과 문물을 邪로 보고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sup>21)</sup> 이렇게 보면 기우만의 생애 후반기는 춘추의리에 입각한 위정척사 정신이 크게 발현된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III. 상소문에 나타난 위정척사사상

일반적인 위정척사란 ‘바른 것(正)을 지키고 그릇된 것(邪)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이러한 正과 邪에 대한 규정은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서양이 동양을 침략해 오던 西勢東漸의 시기로 살펴보면,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는 유교 문명이 正이 되고 천주교가 邪가 되었으며 19세기 중반 이후로는 유교적 문명을 바탕으로 한 조선의 문명과 전장이 正이 되고 제국주의 침략세력인 서구 세력과 그 문명이 邪로 규

20) 송사는 1904년 光州 朱興洞에서 寓居하면서 寒泉精舍를 경영하였다. 1911년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로 이사하였고 1914년 沙浩亭이라는 정자를 지었는데 여기서는 寒泉精舍 인 듯하다.

21) 김기립, 「개화기 호남 유림의 여성 인식 : 송사 기우만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3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433쪽.

정되었다. 서양의 근대 문명은 자유·평등·박애라는 자유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나 동양에 접근할 때는 제국주의 침략자의 모습을 가지고 무력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조선의 문명만이 道義를 중시하는 정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위정척사파는 道義를 실현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華와 夷로 구분하였다. 中華란 중국이 堯舜이하 文武·周公과 孔子·孟子·程朱子를 잇고 禮樂과 文物이 찬란한 道義 문명의 중심이라는 의미이다. 華의 중심이었던 明나라는 이미 夷狄인 清나라에 정복되었기에 華의 중심은 이제 조선에 있다는 小中華의 인식이 썩텄다. 그렇기 때문에 道義에 바탕을 둔 유교적 문명국가인 조선이 中華의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었다. 또한 위정척사파는 仁을 추구하는 王道와 是非를 중시하였고, 개인의 권리보다는 전체적 질서를 중시하였으며 道義와 正名이 실현되는 이상주의를 지향했다.

기우만도 춘추 의리와 斯道를 正으로 인식하였고 異學을 배척해야 할 邪로 규정하고 있다. 『松沙先生文集』 권17 「守善堂記」를 보면, “두 선생이 아니었다면 식사위정의 도리가 있음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했기 때문에 국조 5백년에 이빨을 머금고 머리카락을 인자들은 대강 춘추의 의리와 사도의 전수됨을 알았으니 네 선생의 공아님이 없다.[微二先生不知有息邪衛正之道矣 然則國朝五百年 含齒戴髮 粗知春秋之義 斯道之傳 未始非四先生之功也]”라고 하며 정이라는 것이 ‘춘추의 의리’와 ‘스도의 전수’임을 언급하고 있다. 또 邪에 대한 규정은 『松沙先生文集』 권13 「永思齋遺稿序」에 “그 원고 가운데 실려 있는 시를 살펴보면 「탄이학」 말구에 ‘방검을 빌려서 그 괴적을 섬멸하기를 원하네.’라고 하였으니 그 척사위정이 늄름하여 범할 수 없는 뜻이 있다.[就攷其稿中所載詩 有歎異學末句 有願借尙方劍 糜厥渠魁賊 其斥邪衛正 凛然有不可犯之意]”라고 하면서 ‘異學’이 邪임을 언급하고 있다. 그 밖에도 그의 문집 속에는 그밖에도 衛正斥

邪나 關邪衛正, 關異衛正 등의 용어들이 기문이나 묘지명, 서문 등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우만의 의병활동도 일본에 항거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며 의리라는 위정척사사상에 입각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22)</sup> 일본 세력과 그 문명을 邪로 규정하고 배척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여 의병활동을 전개해 나간 것이다. 1894년 갑오개혁이후로 정부는 일본과 우호조약을 체결하여 개혁을 단행하였다. 六曹를 十衙官制<sup>23)</sup>로 바꾸었고 政令도 모두 신식으로 교체하였으며 국가의 권력이 일본에게 넘어갔다. 1895년 을미년 8월 명성황후가 시해되었고 겨울에는 斷髮令이 시행되는 등 나라 안팎의 정세가 매우 위태로웠다. 12월에 송사는 51세로 「을미소」를 올렸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은 훼발의 명령을 들은 후로부터 문을 닫고 곡기를 끊어서 갑자기 죽어 세상을 보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대개 황후의 원수는 곧 신하들이 함께 臥薪嘗膽해야 할 자인데 국가의 형세가 날로 깎아어 설욕할 희망이 없습니다. 典章과 文物은 여러 聖朝에서 전수된 옛 법도인데 하루아침에 變改하여 다시 회복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훼발령까지 이르니 乖亂됨이 지극합니다.

대저 나라는 망하지 않음이 없으니 모발을 훼손하여 존재하기 보다는 차라리 모발을 보존하여 망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람은 죽지 아니함이 없으니 모발을 훼손시켜 사는 것 보다는 차라리 모발을 보존하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라가 망함은 욕된 바이나 욕됨이 망함보다 심한 것이 있고, 사람의 죽음은 미워하는 바이나 미워함이 죽음보다 심

22) 이상익, 「衛正斥邪派의 外勢에 대한 인식과 대응」, 『泰東古典研究』 제20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4, 3~7쪽.

23) 議政府, 内務衙門, 外務衙門, 度支衙門, 法務衙門, 學務衙門, 工務衙門, 軍務衙門, 農商衙門, 宮內府로 개편한 것을 말한다.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차라리 망하고 사람이 차라리 죽을지언정 몸을 보존하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sup>24)</sup>

『을미소』의 도입부이다. 기우만은 중국 明나라가 清나라에 멸망되었으므로 조선이 정통의 맥을 이었다고 자부하여 우리나라의 전장과 문물에 대한 자긍심이 높았다. 그러므로 조선의 전장과 문물은 바른 것 즉 正으로 규정하고 서양과 일본의 제도나 문물에 대해서는 오랑캐 곤 邪로 규정한 것이다. 華夷의 구분과 이러한 小中華 의식은 기우만 위정척사운동의 사상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sup>25)</sup> 그런데 이렇게 여러 왕조에 걸쳐 전수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전장과 문물이 일본의 체제로 바뀌었으니 그에 대한 실망감은 매우 커졌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조선 문화의 가장 상징적인 위치에 있는 상투를 자르는 일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발부를 훼손하는 일로 도의에 어긋나는 크나큰 사건이었기에 나라가 망하더라도 사람이 죽더라도 지켜야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中華의 맥을 이은 조선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sup>26)</sup> 이러한 의식의 바탕 위에 강력한 어조로 단발령과 제도 개혁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자.

대개 이러한 전후의 變改는 전하의 마음이 아니라 곧 본국 신하들 중 일본과 서양에 심복하는 자들이 거짓으로 제정하여 협박하는 것임

24) 奇字萬, 앞의 책, 권2, 「乙未疏」：臣自聞毀髮之令，閉戶絕粒，誓溢死而無見。蓋母后之讐即臣子所共臥薪嘗膽者，而國勢日削，[汗+朝]雪無望。典章文物是列聖朝傳守舊制，而一朝變改復觀無期。至于今毀髮，而乖亂極矣。夫國未有不亡，與其毀髮而存，寧保髮而亡。人未有不死，與其毀髮而生，寧保髮而死。國亡爲所辱，而所辱有甚於亡。人死爲所惡，而所惡有甚於死。所以國寧乎亡，人寧乎死，而不願乎存且生也。

25) 홍순권,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사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4, 317쪽.

26) 김기립, 앞의 논문, 433쪽.

니다.(중략) 아, 저들은 유독 선왕의 遺臣이며 선왕의 遺體가 아니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왕의 복이 아니면 감히 입지 않으며 신체발부는 부모에게 받았으니 감히 훼상하지 않는다.”<sup>27)</sup>하였고,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堯舜의 도가 아니면 감히 왕 앞에서 진설하지 않는다.”<sup>28)</sup>고 하였습니다. 저들은 또한 그 말을 일찍이 외우고 익히며 마음에 달게 여겼는데, 일본과 서양의 매와 개가 되어 우리의 법복을 훼손하고 우리의 피부와 턱력을 훼상하여 祖宗과 부모의 나라로 하여금 이적과 금수의 구역으로 빠지게 하고 聖主를 협박하여 천하 후세에 죄를 얻게 하고자 하였습니다.<sup>29)</sup>

당시의 제도 개혁과 단발령은 모두 일본과 서양에 심복하는 개화파들이 고종의 마음인양 의탁하여 자행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고종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도 개혁과 단발령에 반대하는 근거를 공자와 맹자의 사상에서 찾고 있다. 그 시대 양반 관료들은 모두 성리학에 입각한 사고와 행동을 규범으로 삼았다. 특히 『논어』 「안연(顏淵)」편에 “임금은 임금 노릇을 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을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하고, 아들은 아들 노릇을 하는 것.[君君臣臣父父子子]” 즉 ‘正名’을 매우 중요한 유학자의 도리로 여기고 있었다. 기우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데 당시 개화파들은 조선의 전장과 제도를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단행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정치제도부터 서양식 체제를 갖추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우만

27) 『孝經』 제4장.

28) 『孟子』 「公孫丑下」.

29) 奇宇萬, 앞의 책 : 蓋此前後變改 非殿下之心, 乃本國臣子倭肚洋腸者, 矯制而迫脅也.(중략) 噫, 彼時羣獨非先王之遺臣而先人之遺體乎. 孔子曰, “非先王之法服, 不敢服,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孟子曰, “非堯舜之道, 不敢陳於王前.” 彼亦嘗素所誦習者而甘心, 作倭洋鷹犬, 毀我法服, 傷我膚髮, 欲使祖宗父母之邦, 爲夷狄禽獸之域, 迫脅我聖主, 而使得罪於天下後世.

은 조선의 전장과 문물은 선왕으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유산으로 인식하고 절대로 변화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겼다.<sup>30)</sup> 또한 ‘臣臣’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이들 개화파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고종에게 주장하면서 이들을 바로잡지 못하면 선왕과 후손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하였다. 신체는 부모에게서 받았으니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전통 유학사상의 기반위에 서양의 문물과 제도는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開化’ 두 글자와 같은 것은 천하 각국이 폐망한 지나간 발자취로 밝게 드러나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개 開物成務<sup>31)</sup>와 化民成俗은 진실로 성인의 일인데 저들이 그 이름을 훔쳐서 그 욕심을 이루었습니다. 만약 사물과 사업이 열리지 않고 민속이 교화되지 않는다면 中夏의 범으로써 夷狄을 변화시켜 이적이 중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마땅히 우리의 예의문물을 본보기로 삼아 천하의 의복을 본받고 천하의 모발을 길어야 하는데, 지금은 곧 그렇지 않아서 이적의 문물을 개방하고 이적의 일을 이루며 이적의 백성을 교화하고 이적의 풍속을 이루니 어찌 그리도 어그러졌단 말입니까.<sup>32)</sup>

‘개화’는 폐망한 나라의 발자취로 ‘개물성무’나 ‘화민성속’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중화의 문물이 이적을 교화하는 것이 순서인데 거꾸로 이적의 문물이 중화를 교

---

30) 김기립, 앞의 논문, 435쪽.

31)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는 도리를 卜筮를 통하여 알게 해서 이것을 실지로 事業에 시행하여 성공하게 하는 것이다.『周易 繫辭傳上』

32) 奇字萬, 앞의 책 : 且若開化二字是天下各國敗亡之已跡昭著而不可諱者，蓋開物成務化民成俗是固聖人之事，而彼乃竊其名而濟其慾。若物務有未開，民俗有未化，則用夏變夷，夷以進於中國可也。祇當師範我禮義文物，法天下之眼長天下之髮，而今則不然，開夷狄之物，而成夷狄之務，化夷狄之民，而滅夷狄之俗，何其舛也。

화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옛 시대에는 제도의 개혁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순순히 복종하고 따랐으나 지금은 온 나라 백성들이 통분하여 죽기를 원한다고 믿심을 전하고 있다.

백성이 지극히 어리석으나 하늘과 귀신의 마음이 회를 일으킨 결후회할 그 날이 거의 있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제왕으로서 결단을 내리시어 제왕의 명령을 온 천하에 널리 선포하시고 겉으로는 조선을 위하는 척하고 안으로는 일본에 복종하는 자 몇 사람의 머리를 먼저 베어서 신민들에게 사례하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여 명령을 바꾸어서 신속히 舊章을 회복하여 復讐討伐의 의리로써 전국에 포고한다면 무릇 우리 哀憤이 맹극한 백성 중에서 누가 전하를 위하여 한번 죽고자하지 않겠습니까.<sup>33)</sup>

「乙未疏」 마지막 부분이다. 선왕의 옛 제도를 회복하고 일본에 복종한 친일 세력을 응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復讐討伐의 의리로 전국에 선전포고를 한다면 온 백성들이 일심으로 단결하여 싸울 것임을 주장하였다. 국가를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결연한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을미소」는 고종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다. 1905년 10월 기우만은 乙巳條約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섯 번째 상소인 「乙巳疏」를 올렸다. 도입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섬 오랑캐가 우리나라에 야심을 품은 지가 오래 되었으나 본국의

33) 奇字萬, 앞의 책 : 民者至愚, 而神天心悔禍, 廢有其日, 伏願, 殿下廓揮乾斷, 漢發大號, 先斷外鮮內倭者幾人頭以謝臣民, 引咎改命, 邁復舊章, 以復讐討伐之義, 布告八域, 則凡我哀憤罔極之民, 穢不爲殿下一死。

신하들 가운데 伯嚭<sup>34)</sup>와 子蘭<sup>35)</sup> 같은 자가 앞뒤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어찌 주인 없는 집에 들어오듯 하겠습니까. 그 때 聖明께서 법에 따라 주벌하지 못하여 금일의 재앙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이미 修好與開化 등의 말로 손가락을 적셔서 한번 시험해 보다가 성공하면 다음은 舊章을 變革한다고 하여 얻어내고 軍機를 녹여 깨뜨린다고 하여 얻어내고, 조정에도 손을 써서 얻어내고 官防에도 발을 동동거리며 얻어냅니다. 賣國의 여러 도적들이 또한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 사적으로 우리 군주의 토지와 인민 아울러 그 정권까지 함께 내주었습니다.

아, 犬羊을 가리키며 절하게 하니 비록 무지한 童子라도 오히려 또 한 부끄러워하며 달가워하지 않을 것인데 이 무리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몰래 犬羊만도 못한 자들을 이끌고 와서 우리 4천년 부모의 나라를 패망시킨단 말입니까. 이들은 이른바 천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죽여야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땅 속 귀신들이 은밀하게 베어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조정의 법도가 가해지지 않으니 성상의 뜻이 있는 바를 신은 진실로 알지 못하겠습니다.<sup>36)</sup>

34) 오나라 간신이다. 월나라 구천이 오나라 夫差와 싸우다가 패하였을 때 오나라의 태재로 있는 백비를 매수하여 오나라와 강화를 맺게 하였고, 이어 원수를 갚기 위해 절차부심하면서 백비에게 오나라의 명장인 伍子胥를 참소하도록 하여 부차로 하여금 오자서를 죽이게 한 뒤에 부차를 쳐서 원한을 갚았다. 부차에 대한 원한을 갚고 난 뒤에 구천은 백비를 등용하지 않았다.『史記 권66 伍子胥列傳』

35) 초나라 간신으로 굴원을 모함하여 죽게 한 자이다. 굴원은 이름이 平이고 자는 原이며, 호는 靈均인데, 본디 초나라의 귀족으로서 懷王을 섬겨 벼슬이 左徒에 이르고 큰 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대부인 子椒와 회왕의 동생인 司馬子蘭의 시기를 받아 빙축되었다가 長沙의 汨羅水에서 투신자살하였다.

36) 奇字萬, 앞의 책, 「乙巳疏」 : 島夷之狼心於吾邦久矣, 而不有本國臣子如伯嚭子蘭者前後之, 則豈能如入無人之室, 其時聖明不能按法而誅之, 致有今日之禍, 彼既以修好開化等說, 染指嘗試而得之, 次之以變革舊章而得之, 銷破軍機而得之, 涉手於朝廷而得之, 賴足於官防而得之, 賣國諸賊又爲之騰犬, 私與吾君之土地人民并與其政柄而與之, 鳴呼! 指犬羊而使之拜, 雖無知童子, 猶且耻而不肖, 此輩果何心囂潛引犬羊之不如, 以覆敗我四千年父母之邦, 此所謂不惟天下之人顯戮, 亦地中之鬼陰誅者, 而王章不加, 聖意所在, 臣實未曉

을사오적을 간신들인 오나라 백비와 초나라 자란에 비유하며 만 천 하에 공개적으로 처단하고 지하에서 귀신들이 은밀하게 죽여야 할 자들 인데 이런 불구대천의 원수를 왜 죽이지 않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 가는 과정을 다섯 단계로 자세하게 밝히고 있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해 가는 과정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만약 聖朝의 신하들이 받은 바의 王爵을 사사로이 그 벗에게 부여 한다면 반드시 크게 불경스럽게 여겨서 不道한 자에게 행하는 주벌을 행할 것인데, 이 무리들은 선왕이 전해준 강토를 가지고 사사로이 원수인 적에게 내주었는데도 도리어 거두어서 따뜻하게 보살피며 하늘 땅 사이에서 목숨을 부지하게 했습니다. 또한 존중하고 총애하며 선물을 하사함이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듯합니다. 賞讐이 이와 같이 도치되니 섬나라 추장의 협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나라가 나라가 되는 체모가 없으니 아, 슬픕니다.

신은 듣건대, 바야흐로 섬나라 추장이 5조<sup>37)</sup>로써 困迫하던 날에 성상이 赫然히 노하시어 이르기를, ‘우리가 지킨 강토와 인민은 선왕께서

37) 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監理,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臣民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협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統監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서울)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폐하를 친히 內謫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理事官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제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掌理한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협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이 조약으로 인해 외교권이 박탈당하였으며 그 이듬해 통감부가 설치되어 내정간섭을 받게 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물려주신 것으로 우리가 사사로이 얻은 것이 아니니, 안으로는 조정의 신하들이 있고 밖으로는 여러 집사들이 있으며, 八域의 億兆蒼生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sup>38)</sup>

을사오적이 오히려 정부의 비호와 포상을 받고 있는 실상을 폭로하며 상벌이 전도되었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일본에 나라를 팔아버린 무리는 마땅히 주벌되는 것이 도리인데 오히려 포상하고 보호하는 것은 위정척사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이치에 맞는 행동이 아닐 것이다. 또한 선왕이 전수해준 국토는 몇 명의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온 백성들과 공유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위대합니다. 왕의 말씀이여! 옛날 송나라 군주가 군주다운 말을 하니 형혹성[火星]이 옮겨 갔습니다.<sup>39)</sup> 성상의 말씀도 천심이 반드시 고쳐서 옮겨가게 할 것입니다. 삼가 원컨대, 聖明께서는 즉시 賣國의 여러 적에게 不道한 翼를 주벌하듯이 하여서 八域의 신민들에게 사죄하십시오. 자신을 죄주고 책망하기에 급급하여 크게 호령을 빌하고 옛 법도를 회복하여 사대부의 마음을 결집시키고 모발을 길게 하고 옛 의복을 입게 하여 군인의 마음을 결집시키시며 세금을 감해주어 농민의

38) 奇字萬, 앞의 책 : 假使聖朝臣子以所受之王爵, 私與之其友, 則必以爲大不敬, 行不道之誅, 而此輩將先王所傳之疆土, 私與之歸敵, 則反收拾煦噓, 使假息天壤. 又尊寵賜賚如恩不及, 賞戮如是倒置, 不待烏鵲之脅迫, 而國無以爲國, 嘴呼! 痛矣. 臣聞, 方島醜以五條困迫之日, 聖怒赫然以謂, “吾所守之疆土人民是先王所遺, 非吾所得, 私內有廷臣, 外有百執事, 以至八域億兆蒼生, 可與共之.”

39) 宋나라 경공 37년에 燃惑星이 송나라의 分野에 나타나자 경공이 두려워하였다. 天文을 맡아보는 관원인 子韋가 재상에게 허물을 돌릴 수 있다고 하자, 경공이 “재상은 나의 팔과 다리이다.” 하였고, 백성에게 허물을 돌릴 수 있다고 하자, “임금은 백성이 있어야 한다.” 하였으며, 다시 농사에 허물을 돌릴 수 있다고 하자, “농사가 흉년이 들면 백성들이 곤궁해지는데 내가 누구와 더불어 임금 노릇을 하겠는가.” 하였다. 그러자 자위가 말하기를, “하늘은 높이 있으나 낮은 데에서 듣습니다. 임금께서 임금다운 말 세 마디를 하였으니 형혹성이 물리갈 것입니다.” 하였는데, 다시 관족해 보니 과연 30리를 옮겨 갔다. 『史記 권38 宋微子世家』

마음을 결집시키십시오. 굶주린 자에게 음식 되기 쉽고, 목마른 자에게 음료 되기 쉬운 것입니다. 이 명령이 한번 나오면 이천만 생령들이 종 일을 기다리지 않고 굳게 단결할 것입니다.<sup>40)</sup>

또한 다섯 가지 조항을 자세하게 제시하며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을사오적을 처벌하여 백성들에게 사죄하라. 둘째, 옛 전장을 회복하라. 셋째, 단발령을 철회하라. 넷째, 옛 군복을 입게 하라. 다섯째, 세금을 감면하라. 예로부터 망한 나라는 많았지만 한통의 片紙로 망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음을 한탄하였다. 그러면서 전국에 舉義의 소식이 들려오면 마땅히 따를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때에 勉庵 崔益鉉이 鄭載圭와 함께 영호남의 유생들에게 魯城 闕里祠에 모여 거의할 것을 포고하였다. 송사도 함께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聯名上疏를 올려 을사오적을 처단할 것을 고종에게 청하고 재외 公館에 공개서안을 보내 원통함을 호소하고 일본을 성토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진실로 또 하나의 큰 의병활동[大舉]이라고 하였다.

#### IV. 담판문에 투영된 의병정신<sup>41)</sup>

기우만은 을미사변(1895)과 단발령에 반발하였고 또한 국왕의 아관파

40) 기우만, 앞의 책 : 大哉, 王言! 昔宋君有君人之言, 燥惑徙舍. 聖上此言, 天心必爲之改移. 伏願, 聖明卽將賣國諸賊行罪不道之誅, 以謝八域臣民. 沢汲於罪己責躬, 漢發大號, 修復舊典以結士大夫之心, 長髮服舊以結軍人之心, 減薄稅斂以結丘民之心. 飢者易爲食, 渴者易爲飲. 此令一出, 二千萬生靈不煥終日, 固結如壘.

41) 담판문은 직접적인 의병활동을 알 수 있는 글들이 아니고 의병정신을 엿볼 수 있는 글들이라 여겨 필자는 '의병정신'이란 제목을 붙였다.

천(1896)이 몇 달 동안 계속되는데도 신하들이 복수 토벌할 생각이 없고 충언과 직간이 주상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을 분개하며 의병을 일으켜 국가를 부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침내 毅菴 柳麟錫이 密詔를 받들고 畿內에서 의병을 일으키자, 송사도 1896년 병신년 1월에 격문을 보내 의병을 모집하였다. 2월 장성 향교에 모여 倡義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고종도 밀조를 보내 지지하였다. 高光洵·奇參衍·金翼中 등 200여 명의 의사들과 羅州로 가서 湖南大義所將이 되었으며 참서관 안종수를 죽인 나주 의병을 격려하고 30일 光州로 집결하여 의병활동을 전개해 해남군수 정석진과 담양군수 민종렬도 합류하여 기세를 떨쳤다. 또한 상소를 올려 舉義의 이유와 근왕할 것을 기약하였다.<sup>42)</sup> 기우만을 중심으로 한 호남의병은 기삼연을 선봉장으로 하고 그가 거느린 장성 의병 300여명이 주축이 되었다. 그러나 친위대 중대장 이겸제가 진주 의병을 진압하고 전라도에 들어와 해남군수 정석진을 죽이고 담양군수 민종렬을 체포하여 의병을 위협하였다.<sup>43)</sup>

또한 宣諭使 申箕善이 고종의 밀지를 전달하여 이르기를, “주상이 밀지에서 의병을 장려한 것이 금일 집권자를 협박하는 칼자루가 되어 督過함이 더욱 심하니 환궁할 기약이 없다. 공의 舉義는 본래 宮車를 받들어 돌아오게 하고 군부의 치욕을 씻고 討復의 의리를 갚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君民이 격리되고 막혀 號令이 통하지 않고 역도들이 막고 저지하여 聖志를 펼칠 수 없었다. 선유사를 내려 보냄은 진실로 매우 부득이 해서였다. 유지를 받들어 의병을 해산하는 것 또한 어찌 충성을 바치는 한 가지 의리가 아니겠는가.” 하였다. 기우만은 선봉장 기삼연의 반대에

42) 奇字萬, 앞의 책, 「丙申疏」에 나온다. 「병신소」는 모두 2월, 3월, 5월 각 3차례 올려졌으나 모두 고종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43) 이상식, 앞의 논문, 374쪽.

도 불구하고 통곡하며 의병을 해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송사는 9월 三聖<sup>44)</sup> 정상에 三山齋를 지어 자취를 감추고 외부활동을 일체 끊었다. 월고 조성가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그 당시의 심정과 삼산재에서 살게 된 배경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

엎어진 둥지에 온전한 알이 없으니<sup>45)</sup> 혼인군자들이 유리되고 도망쳐 숨는 것은 진실로 그 형세입니다. 저 당(堂)에 사는 제비가 어찌 화가 장차 미치려한다는 것<sup>46)</sup>을 알겠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혀를 끌끌 차게 합니다.<sup>47)</sup> 군자는 곤궁 속에서 형통하니<sup>48)</sup> 오직 이때가 그러합니다. 방장산(지리산) 바위동굴에서 크게『춘추(春秋)』<sup>49)</sup>를 읽는다면 어찌 반드시 노중련이 동해를 밟고<sup>50)</sup> 백이가 수양산에 오를 것<sup>51)</sup>이 있겠습니까?

44) 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고산서원 근처에 있다.

45) 漢나라 孔融이 사형을 당할 때 8세와 9세 된 두 아들의 목숨만은 살려 주기를 원했는데, 이때 두 아들이 “둥지가 깨질 때 알이 무사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大人豈見覆巢之下復有完卵乎]”라고 말했던 고사가 있다. 『世說新語 語話』

46) 이른바 燕雀處堂 혹은 燕雀處屋의 고사로, 일상적인 안일에 젖은 나머지 장차 위험이 닥치는 것도 모르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孔叢子』 「論勢」의 「제비와 참새가 집에 둑지를 틀고는, 어미와 새끼가 서로 먹이를 주고받으면서 편안히 즐기며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고만 있을 뿐, 구들에서 불꽃이 치솟아 건물 전체가 타 버릴 상황이 되었는데도 제비와 참새는 안색을 바꾸지 않고 화가 장차 자기 몸에 미칠 줄을 알지 못한다. [燕雀處屋 子母相哺 眇煦焉其相樂也 自以爲安矣 罷突炎上 棟宇將焚 燕雀顏色不變 不知禍之將及己也]」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47) 晉나라 殷浩가 廢黜당한 뒤에 하루 종일 손가락으로 ‘咄咄怪事’라는 네 글자를 끼적이면서 신세를 한탄했다는 고사가 있다. 『世說新語 黜免』

48) 『周易』困卦 ䷮에, “곤파는 형통하고 바르니 대인이기 때문에 길하고 허물이 없다. [困亨貞大人吉无咎]”라는 말이 나오고, 단사(彖辭)에, “힘해도 기뻐할 줄 알고 곤궁해도 형통함을 잊지 않는 것은 오직 군자만이 가능할 뿐이다. [險以說 困而不失其所亨 其唯君子乎]”라는 말이 나온다.

49) 기원전 5세기 초에孔子가 엮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史書이다. 春秋時代 魯의 隱公 元年(BC 722년)부터 哀公 14년(BC 481년)까지의 事蹟을 연대순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儒學에서 五經의 하나로 여겨진다.

50) 전국 시대 齊나라의 高士인 魯仲連이 趙나라에 가 있을 때 秦나라 군대가 조나라의 수도인 邶鄆을 포위하였는데, 이때 魏나라가 장군 新垣衍을 보내 진나라 임금을 황제로 섬기면 포위를 풀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노중련이 “진나라가 망자하게 황제를 칭한다면 나는 동해를 밟고 빠져 죽겠다.” 하니, 진나라 장군이 이 말을 듣고 군사를 50리 뒤로 물렸다고 한다. 『史記 卷83 魯仲連列傳』

51) 伯夷와 叔齊가, 周 武王이 殷나라를 멸망시킨 것에 반대하여, 산속에 들어가 고사리만 캐 먹으면서 周나라 고식을 먹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다가 끝내 굶어 죽은 것을 가리킨다. 『史記 卷61

니까. 저의 처신은 그 마땅함을 얻지 못하였으니 삼성산(三聖山)<sup>52)</sup> 산 중으로 들어가 수풀 속에 집을 지어 인생을 마치는 계책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일 만들기를 좋아하는 주변 사람들이 5칸짜리 집을 지어 지난 달부터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집과의 거리는 5리로 가깝습니다. 멀리 보낼 편지라 감히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sup>53)</sup>

의병을 성공시키지 못한 좌절감과 의병해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삼성산으로 들어가 춘추 의리를 지키며 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상식은 “광주향교에 본거리를 둔 1차 의병은 왕의 선유를 받아 해산했지만 전남 13개 고을을 휩쓸었고 나주관찰사는 도망쳤으며 참서관 안종수, 참서관 총순 각 1명씩을 살해하여 민족의 분노를 풀었다.”<sup>54)</sup>고 평가했다.

기우만은 또한 1906년 여러 차례 거의를 도모하였으나 실패로 끝나자 압록강을 건너 청나라로 가서 초나라 申包胥처럼 구원을 요청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白洛九가 공초를 받으면서 송사가 사주했다는 자백을 받아 다시 압상의 명령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떠나지 못하였다. 10월 光州 경찰서로 압송되었다. 그 당시 공초에서 송사가 했던 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伯夷列傳』

- 52) 현 고산시원 원편에 있는 산이 삼성산이며 옆으로 보덕산, 불태산이 있다. 삼성산 중턱에 삼산재 (한천정사) 터가 남아 있다. 송사는 1892년 47세에 담양군 수복면 중홍동(중골)으로 이사하였다.
- 53) 奇字萬, 앞의 책, 권3, 「上趙月阜先生」： 覆巢無完卵，賢人君子流離奔竄，固其勢也。彼處堂之燕，安知禍之將及也。令人喟喟。君子困亭，惟此時爲然。方丈巖穴，大讀『春秋』，何必蹈魯連之海，陟伯夷之山也。宇萬處身不得其所，入三聖山中，因樹爲屋，以終老計，而傍人好事，築室五架，自去月入處，距家五里而近耳。遠書不敢張皇。
- 54) 이상식, 「한말 항일민족운동의 一考-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제11집, 전남사학회, 1997, 378쪽.

을미년(1895) 망국의 변고는 다만 너희가 한 것이다. 조선의 신민이  
라면 누가 너희를 진멸시켜 너희의 고기를 먹고 너희의 가죽에 눌고자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바야흐로 동지들을 불러 모아서 곧장 北上 하  
려고 했으나 선유사가 와서 회유하여, 부득이 해산하고 돌아가 입산하  
여 토굴을 지어 생활하였다. 지금까지 백립을 쓰고 臥薪嘗膽을 기탁하  
여 일순간도 어찌 일찍이 복수토적을 잊었겠느냐. 해가 저물고 길이  
멀어 뜻하는 일을 펼치지 못했다. 작년 10월 을사오조약이 체결됨에  
이르러 삼천리 강역에 완전한 땅이 없어졌으니 白洛九의 倡義는 나의  
마음을 먼저 알았다고 이를 만하다. 얼굴은 비록 알지 못하나 마음은  
곧 서로 알았으니 의리가 같으면 마음도 같은 것이다. 마음이 같으면  
지시하지 않아도 지시되며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이다.(중략)

손 안에는 비록 작은 무기도 없지만 흉중에는 항상 만 명의 갑옷  
입은 병사가 있다. 강물소리를 들으면 철갑옷을 털어 입고 동쪽으로  
정벌 갈 것[일본 정벌을 의미함]을 생각하고 山水를 보면 거짓 병사로  
위장시켜 오랑캐를 축출하고 싶어진다. 비록 온 나라 사람들이 義學를  
일으켜 나를 추대하더라도 나는 사양하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살아서  
는 이씨의 신하가 되고 죽어서는 이 씨의 귀신이 되는 것으로 종결지  
을 것이다.<sup>55)</sup>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적의 죄를 고하고 있다. 왜놈의 고기를 먹  
고 피부를 벗겨 깔고 눌고 싶다는 조선 백성들의 복수의 울분을 대변하

55) 奇宇萬, 앞의 책, 권12, 「光州談辦」 : 乙未罔極之變職爾所爲. 朝鮮臣民, 孰不欲殄滅汝, 唔汝肉, 寢汝皮乎. 吾方收召同志, 不日北上, 而宣使來諭, 不得已罷歸入山爲窟. 至今戴白以寓薪膽, 一時刻曷嘗忘討復. 而日暮道遠, 志事未伸. 至昨年十月五條約, 而三千疆域無完土, 白洛九倡義可謂先獲我心. 面雖不識, 而心則相照, 義同則心同. 心同則不指亦指, 不使亦使(中략) 手裏雖無寸鐵, 胸中常有萬甲. 聞江聲, 思拂鐵衣而東征, 見山水, 願作疑兵而逐虜. 雖舉國之人有義學而推誘於我, 我且不辭. 終以生爲李氏臣, 死爲李氏鬼, 結之.

였다. 강물 소리를 들으면 갑옷을 입고 정벌가고 싶고 山水를 보면 위장 시켜 섬 오랑캐를 몰아내고 싶다고 하며 의병장으로 추대되면 결코 사양하지 않을 것이란 결연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또한 오적을 처벌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氣勇이 격한 사람은 칼을 품고 기습하여 죽이니 義俠者가 행하는 것이다.君子와 같은 경우는 이와는 다르다. 出仕하여 조정에 올라 殿上에서 모시다가 갑자기 이런 변고를 만났다면 몸 안의 피가 뜨겁게 들끓어 올라 手板<sup>56)</sup>으로 쳐서 죽이더라도 팬찮을 것이다. 그 마땅한 처지를 얻지 못했다면 위로는 天王께 고하고 아래로 군주에게 고하여 명분을 바로잡고 죄목을 정하여 부도한 자에게 행하는 주륙을 행할 것이다. 이것도 또한 할 수 없다면 물러나 外史를 엮어서 萬歲의 주륙을 행할 것이다.<sup>57)</sup>

군자가 조정에서 을사오적과 같은 적들을 만났다면 눈앞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당장에 주륙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신하답지 못한 신하를 처벌하는 것은 正名의 입장에도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글로 남겨 역사에 길이 남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제시하였다.

62세인 1907년 3월에는 을사오적의 암살을 사주했다고 하여 靈光경찰서에 압송되었다. 또 4월 서울경찰서로 압송되었다가 20일 만에 석방

56) 笏이다. 晉나라 王子猷이 桓溫의 參軍이 되었을 때, 환온이 “경은 府에 오래도록 있었으니 일을 잘 처리할 줄로 믿는다.”라고 하니, 왕자유가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手板 즉 笏을 턱에 받쳐 괴고는 “서산의 아침 빛 기운이 삽상하다.[西山朝來 致有爽氣]”라고 응대하며 경치를 계속 감상한 고사가 있다.『世說新語 簡傲』

57) 奇字萬, 앞의 책 : 氣勇所激, 懷刃掩殺, 義俠之爲也. 若夫君子則異於是. 出仕登朝, 侍殿上, 猝遇此變, 則腔血熱沸, 以手板擊而斃之, 可也. 不得其地, 則上告天王, 下告方伯, 正名定罪, 行不道之誅.

되었다. 그 당시 공초에서 했던 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전 각국의 자주독립의 날에 萬國의 공법[국제법]과 馬關條約(시모노세키 조약)<sup>58)</sup>이 분명하게 존재해 있거늘,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다시 우리 國母를 시해하고 우리 군부를 위협하며 신하들을 유혹하고 강토를 빼앗으며 典章을 파괴하고 피부와 머리카락을 훼손하며 정치[官政]를 변화시키고 財源을 고갈시키며 軍務를 소유하고 형법을 천단하여 우리 군민 상하로 하여금 그 손쓸 방도가 없게 하니 이것이 公法이고 조약이란 말인가.<sup>59)</sup>

기우만은 일본을, 국모를 시해하고 우리 군대를 해산시켰으며 전장을 파괴하고 피부와 턱력을 훼손시키고 우리 강토를 유린하였으므로 강력하게 처단하고 배척해야하는 邪로 규정하였다. 일본의 침탈에 국가는 속 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만 위정척사 의식으로 무장한 기우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서릿발 같은 기상으로 일본의 죄상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담판문 속에 특영된 의병정신은 바로 한결같이 일본을 邪로 규정하고 배척해야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항일정신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기우만은 항일정신에 입각하여 일본 침략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구한 말 유학자의 관점으로 담판 중에도 확고하게 피력하였다.

58) 1895년 4월, 청일 전쟁 뒤 청의 강화 전권 대사 李鴻章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일본의 시모노세키에서 체결한 강화 조약. 조선의 독립과 라오동 반도, 타이완 등을 일본에 할양하는 따위를 내용으로 한다.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도 한다.

59) 奇字萬, 앞의 책, 권12, 「京部談辨」：曩在各國自主獨立之日，萬國之公法，馬關之條約，昭然自在，此猶非吾所可者。而乃復禍我國母，脅我君父，誘臣子，奪疆土，壞典章，毀膚髮，變官政，渴財源，主軍務，擅刑法，使吾君民上下，無所措其手足，此在公法乎條約乎。

## V. 맷음말

이상과 같이 상소문과 담판문을 통해 기우만의 위정척사사상과 의병 정신을 알아보았다. 기우만 의병활동에 대한 그 내재적 의미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춘추 의리에 입각한 존화양이와 소중화 의식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둘째, 복수토벌에 입각하여 일본을 배척해야 할 邪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셋째, 기우만은 조부인 기정진의 위정척사사상을 잘 계승하고 실천하였다. 이러한 위정척사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담판문이나 상소문 등에 나타난 의병정신은 바로 항일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기우만은 한말 대 격변기를 살다간 인물이다. 서양과 일본의 침략에 국토가 유린되고 만백성이 고통 속에 살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절의와 사상을 지켰고 행동으로 실천했다. 이것은 모두 조부인 노사 기정진에게서 전수받은 尊華攘夷적 위정척사사상과 復讐討伐이라는 春秋 의리정신이 밀바탕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본고는 기우만의 상소문과 담판문을 통해 위정척사사상과 의병정신에 입각한 내재적 의미를 찾는 것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시야를 확대하여 그의 의병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 다른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킨 의암 유인석이나 면암 최익현, 면우 곽종석 등과 연관 지어 이들의 의병활동과 비교 분석한다면 그의 의병활동의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논술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호남 유학의 종장인 기우만은 한말 나라 안팎의 정세가 위태로워지자 곧바로 「을미소」를 올렸다. 「을미소」에서 그는 단발령과 제도개혁에 반대하였다. 또 개화사상을 개물성무와 화민성속으로 포장한 패망한 나라의 자취로 인식하고 선왕의 옛 제도를 회복하고 일본에 복종한 친일 세력을 응징할 것을 주장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기우만은 다섯 번째 상소인 「을사소」를 올렸는데 여기에서 그는 을사오적이 정부의 비호와 포상을 받고 있는 실상을 폭로하고, 을사오적을 처벌하여 명분을 바로 세우고 백성들에게 사죄할 것을 청했다.

마지막으로, 의병활동으로 체포되어 공초를 받으면서는 왜놈의 고기 를 먹고 피부를 벗겨 깔고 눕고 싶다는 조선 백성들의 복수의 울분을 대변하였다. 그는 일본을 국모를 시해하고 우리 군대를 해산시켰으며 전장을 파괴하고 피부와 터력을 훠손시키고 우리 강토를 유린한 실체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기우만의 위정척사사상과 의병정신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1896년 을미의병을 해산시킨 이후 좌절하여 삼성산에 은거한 점이다. 이 점은 당시 화서학파 등 여러 유학자에게 비난을 당하였다. 앞으로 은거한 이후의 활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둘째, 1906년 다시 여러 차례 거의를 도모하였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점이다. 기우만은 의병을 여러 차례 도모했지만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전에 해산을 했거나 도모의 과정에서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로, 의병에 동참했던 인물들도 대부분 유생들이라는 점이다. 물론 관원이나 농민들 소수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는 차후 시대적·역사적 상황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田愚, 『艮齋先生文集』

奇宇萬, 『松沙先生文集』

奇宇萬, 『松沙先生文集附錄』

奇宇萬, 『松沙先生文集拾遺』

梁會甲, 『正齋集』

### 2. 단행본 및 논문

김기림, 「개화기 호남 유림의 여성 인식 : 송사 기우만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3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김봉곤,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鎮)의 사상의 형성과 위정척사운동(衛正斥邪運動)」, 『朝鮮時代史學報』 제30집, 조선시대사학회, 2004.

신규수, 「1906년(丙午) 호남지역 의병투쟁 연구」, 『歷史와社會』 제33집, 국제문화학회, 2003.

이상식, 「韓末의 義兵抗爭 : 全南地方을 中心으로」, 『역사학연구』 제4집, 전남사학회, 1990.

이상식, 「韓末 湖南義兵의 歷史的 意味」, 『호남문화연구』 제22집, 호남학연구원, 1993.

이상익, 「衛正斥邪派의 外勢에 대한 인식과 대응」, 『泰東古典研究』 제20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호남지방문화연구소, 『호남문화현기초목록』,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6.

홍순권,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의 參加層과 사회적 기반」, 『역사 연구』 제1집, 역사학연구소, 1992.

홍영기, 「韓末 湖南義兵의 特性과 日帝의 對應」, 『역사학연구』 제10권, 전남사학회, 1996.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홍순권,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사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4.

### 3. 인터넷 사이트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호남기록문화유산, <http://www.memoryhonam.co.kr>

<Abstract>

## Gi U-man's Launch of Wijeongcheoksa Movement and civilian army activity illuminate value

- Focusing on appeal and Gongchomun in Songsa ' Anthology

Cho, Il-hyou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Songsa Gi U-man's Wijeongcheoksa Movement (Pro-Neo Confucianism Movement) based on his pleas to the king and his official documents. The early-time volunteered civil soldiers at the late Korean Empire began to rally around the Wijeongcheoksa thought, and at the center of the movement was Songsa Gi U-man. Gi U-man underwent a great tumultuous time in late Korean Empire. The Korean land was ravaged by Western and Japanese invasions, and the people were thrown into pain. Amid this challenging situation, he kept his own integrity and thoughts and put them to action. Such action was influenced by his grandfather Nosa Gi Jeong-jin's Wijeongcheoksa thought, as well as by traditional Neo-Confucianism.

In his book called Eulmiso, he opposed the state's order of topknot cutting and reformist systems. He perceived the reformist thoughts as a disturbing and people-misleading thought which was camouflaged

as successful pursuit of projects and influencing the people and forming moral customs, and insisted that the traditional systems of former kings be restored and that pro-Japanese forces be punished. After the Eulsa Treaty between Joseon and Japan was signed in 1905, he presented his fifth plea Eulsaso to the king, in which he disclosed the reality of Five Eulsa Foes being protected and prized by the government, and requested that the foes be punished along with apologies to the people.

In addition, he represented the volunteered civil soldiers; they were captured, interrogated, and wanted to take revenge on the Japanese by eating their flesh and skinning them to lie on the skin. He insisted and demanded action to the government: the Japanese assassinated the Queen, disbanded Joseon troops, destroyed the battlefield, damaged the skin and hair of Korean people, looted the Korean land; as such, they should be severely punished and rejected as an evil.

Key words : Songsa Gi U-man, movement, Eulmiso, Eulsaso, civilian army activity.

이 논문은 2018년 3월 16일 투고되어 2018년 4월 5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8년 4월 12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